

중동 오일달러의 규모와 그 파급효과

작성자 : 동서남아팀 박복영 부연구위원

【bypark@kiep.go.kr, ☎3460-1149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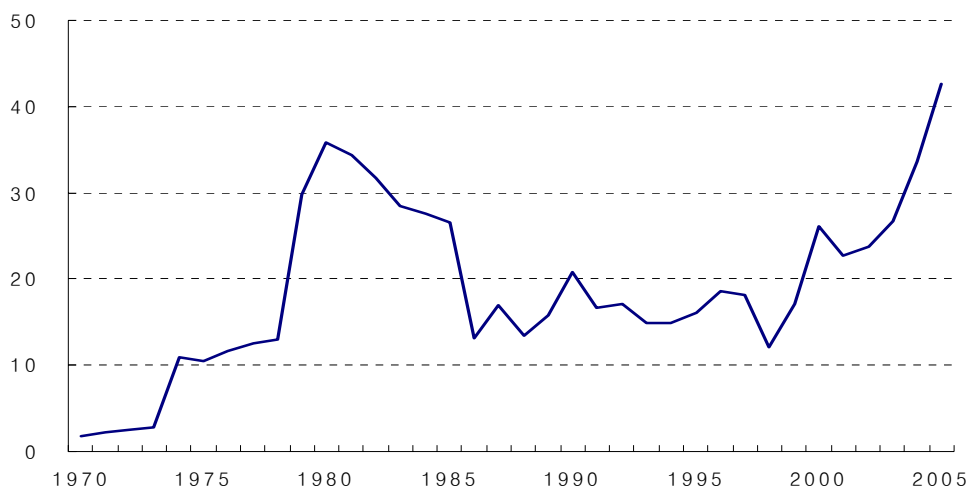
主要內容

- 최근 5년간(2000~04년) 중동으로 유입된 오일달러는 총 1조5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, 이는 1차 오일쇼크 때의 2배이고 2차 오일쇼크 때와는 비슷한 규모임.
 - 하지만,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현재 달러가치로 평가하면 1차 오일쇼크 때는 그 규모가 1.6조 달러, 2차 오일쇼크 때는 2.3조로 최근의 1.5~2배 수준이었음.
 - 유가급등과 석유수출 증가로 금년에 중동으로 유입되는 오일달러는 작년에 비해 약 20% 상승한 3,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중동 산유국들은 2000년 이후 증가된 오일달러의 약 40%를 수입증가에, 35%를 해외투자확대에, 25%를 외환보유고 확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.
- 오일달러 유입의 영향으로 중동지역 수출시장은 최근 5년간 70% 증가하였으며, 주요국의 정부지출도 50~250%가 증가하여 건설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.
-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최근 5년간 70%가 증가했으며, 중동 오일달러가 10% 증가하면 수출이 2.3%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('05년 대중동수출 128억 달러 전망).
- 오일달러의 중동 유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동 연평균 건설수주액은 30억 달러 내외로 과거 오일쇼크 때의 30~40%에 불과한데, 중동 오일달러가 10% 증가하면 건설수주액은 8%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('05년 중동 건설수주액 36억 달러 전망).

1. 중동 오일달러 규모

- 최근 고유가로 소위 ‘오일 달러’(oil dollar)가 중동으로 유입됨으로써 1970년대와 같이 중동지역에 오일 붐(oil boom)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- 국제유가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2001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(<그림 1> 참조).
- 그 결과 2004년 연평균 유가(두바이유 기준)는 배럴당 33.7달러에 이르렀는데, 이는 2차 오일쇼크가 정점에 이르렀던 1980-8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.
- 금년 4월 들어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였으며 1사분기까지의 평균유가는 42.7에 이르렀는데, 이런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연평균유가도 종전의 최고치(1980년 35.9달러)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.
- 최근 연평균 2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막대한 규모의 오일달러가 중동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.

<그림 1> 국제유가(두바이유) 추이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

□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고유가가 지속되었던 1974~1985년의 12년 동안 중동지역으로 총 1.7조 달러(현재가치로는 약 4조 달러), 연평균 1,420억 달러의 오일머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.

- OPEC의 연간 석유수출액은 197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2,820억 달러(현재가치 5,560억 달러)로 정점에 이르렀는데, 이중 약 80%가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 지역으로 유입되었음(<그림 2>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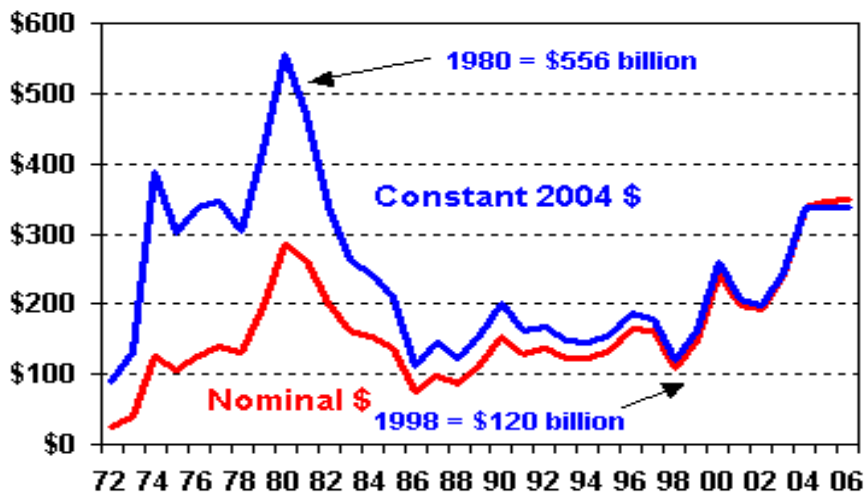
- 국가별로 보면 중동 전체 유입액의 약 35%에 해당하는 7,000억 달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되었고, 이란에 14%, 이라크, UAE, 쿠웨이트, 리비아에 각각 10%, 알제리에 6%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.

※ 나머지는 카타르, 오만, 시리아, 이집트 등에 유입됨

- 당시에 유입된 오일달러는 중동지역의 급격한 소득증가를 유발하였고,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, 외국 수입품의 소비에 사용되었음.

- 한편 석유수입국⇒중동산유국⇒유럽금융시장⇒석유수입국으로 이어지는 오일달러의 환류과정(recycling)은 유로금융시장(Euro-market)의 발전, 달러가치 하락, 개도국 외채위기 등 국제금융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음.

<그림 2> OPEC의 석유수출액 추이



자료: 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

- 최근 5년간(2000~04년) 중동으로 유입된 오일달러는 총 1조500억 달러, 연평균 2,100억 달러로 추정됨(<표 1> 참고).
- 총액으로는 1차 오일쇼크(1974-78년) 때의 2배이고, 2차 오일쇼크(1979-85년) 때와 비슷한 규모이며, 연평균 규모로 비교하면 두 차례의 오일쇼크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임.
- ※ 2차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여 최근 5년간에는 연평균 유가는 약간 낮았지만 중동의 석유수출량이 그때보다 25% 이상 증가하였음.
-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현재 달러가치로 평가하면 1차 오일쇼크 당시 중동으로 유입된 총액은 1.6조 달러, 2차 오일쇼크 때는 2.3조로 최근규모의 1.5~2배 수준이었음.
- 실질가치로 환산한 연평균 오일달러 유입액도 1,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약 65%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.
- 최근 5년간의 평균유가를 실질유가로 환산하면 1차 오일쇼크 때의 68%, 2차 오일쇼크 때의 43% 수준임.

<표 1> 중동유입 오일달러 규모의 시기별 비교

	단위	1차 오일쇼크	2차 오일쇼크	최근
기간	(년)	1974-1978	1979-1985	2000-2004
석유수출량	(만b/d)	2,300	1,500	1,900
평균유가	(달러/배럴)	11.7	30.6	26.6
석유수출총액(명목)	(억 달러)	4,900	11,700	10,500
석유수출총액(실질)	(억 달러)	16,170	23,400	11,000
연평균 석유수출액(명목)	(억 달러)	980	1,670	2,100
연평균 석유수출액(실질)	(억 달러)	3,230	3,340	2,200

자료: 국제에너지기구(IEA), EIA, OPEC자료 등을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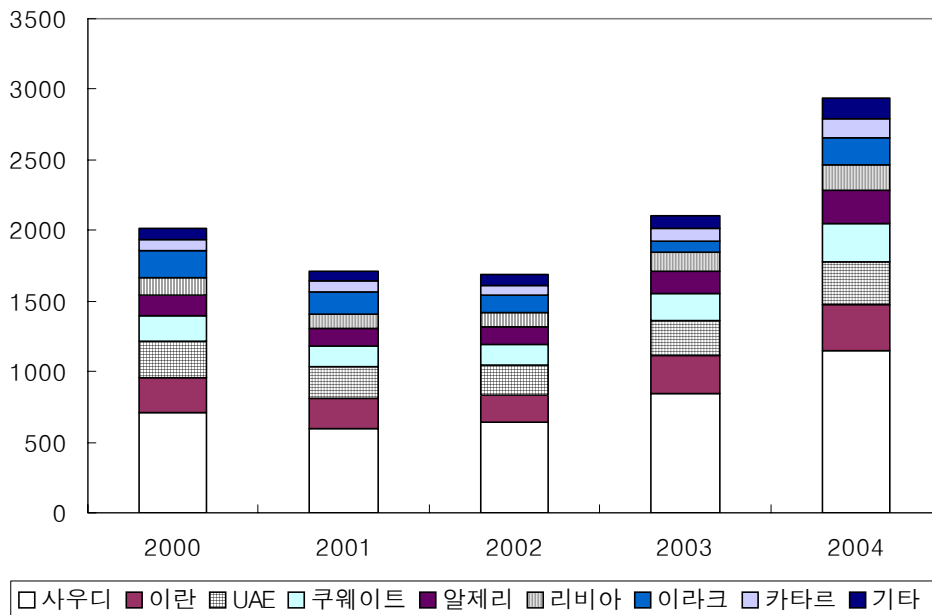
□ 2004년에 중동으로 유입된 오일달러는 3,0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, 국별로 보면 전체 자금 중 38%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되었음.

- 2000~03년에는 연간 오일달러 규모가 1,700~2,0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, 2004년에는 유가의 추가적 상승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로 그 규모가 50% 가량 증가하였음.

- 최근 5년간 오일달러 규모를 국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3,950억 달러(38%), 이란과 UAE가 각각 1,250억 달러(12%), 쿠웨이트 930억 달러(9%), 리비아, 알제리, 이라크가 각각 700억 달러 내외(7%)임.

<그림 3> 국가별 오일달러 유입액(2000-04년)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OPEC과 EIA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

□ 금년에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로 중동 오일달러는 작년에 비해 약 20% 상승한 3,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- 이는 올해 국제유가(두바이유)가 연평균 40달러가 되고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수요가 전년에 비해 2%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임.

2. 오일달러의 흐름과 그 영향

가. 오일달러의 흐름

□ 중동지역, 특히 걸프지역 산유국의 경우 석유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임.

- 전체 GDP에서 석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30~50%(2002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33%, 쿠웨이트 40%, 리비아 53%)를 차지하며, 천연가스와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짐.

- 그리고, 전체 수출에서 석유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부재정에서 석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90% 내외에 이름.

- 따라서, 막대한 오일달러의 유입은 중동의 경기, 상품과 자본의 유출입, 재정수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국제무역과 국제적 자금 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.

※ IMF에 따르면 중동 석유수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3년에는 6.5%, 2004년에는 5.7%에 이르렀고, 금년과 내년에도 5%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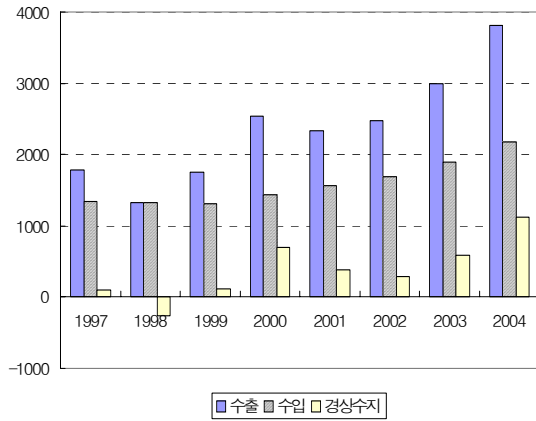
□ 중동으로 유입된 오일달러는 정부지출의 증가, 해외수입의 증가, 해외투자의 증가, 외환보유고의 증가 등의 형태로 지출됨.

- 오일달러 유입결과 중동지역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는데, 중동지역 전체 수입은 1999년 1,310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,170억 달러로 5년간 약 70% 증가하였음.

- 하지만, 수입보다 석유수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같은 기간 120억 달러에서 1,125억 달러로 약 10배가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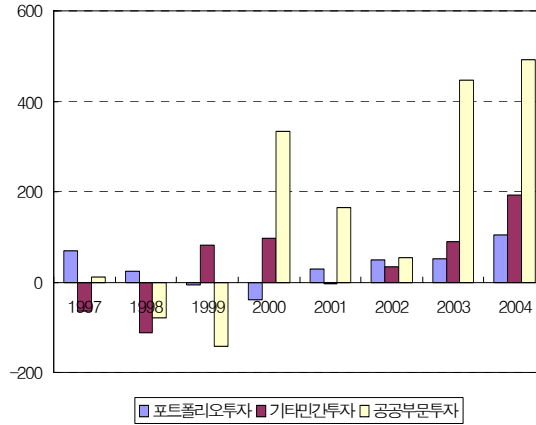
※ 2004년 중동지역의 경상수지 흑자 1,125억 달러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개도국 전체 흑자 1,033억 달러보다도 많은 규모임.

<그림 4> 중동의 수출입 추이



<그림 5> 중동의 해외순투자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IMF(2005)를 이용하여 작성

- 중동국가들은 오일달러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하였는데, 오일 붐이 있었던 **2000 ~ 2004년의 5년간 중동으로부터 약 2,100억 달러의 자금이 순수출된** 것으로 분석됨(해외직접투자는 제외).

- 이 중 민간에 의한 유출은 602억 달러,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의한 유출이 1,49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후자의 대부분은 산유국 정부가 오일달러를 해외에 투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
- 한편,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달러의 일부를 외환보유고 확충에 사용했는데, 중동 전체 외환보유고는 1999년 1,232억 달러에서 2004년 2,598억 달러로 **100% 이상 증가**였음.

※ 중동 산유국들은 대외부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일달러가 외채상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 중동 전체의 대외부채는 위 기간동안 2950억 달러에서 3,210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.

□ 결국 중동 산유국들은 2000년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된 오일달러의 약 **40%**를 수입증가, **35%**를 해외투자, **25%**를 외환보유고 증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.

나. 오일달러의 세계경제적 영향

□ 증가된 오일달러 중 약 40%가 수입의 증가로 사용되기 때문에, 다른 지역의 대중동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.

- 대중동 수출이 특히 많이 증가한 지역은 중국과 EU지역인데,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층은 유럽의 고가품 소비를, 중동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은 중국의 저가품 소비를 늘이는 것으로 추정됨.

※ 2004년 중동의 수입증가율은 15%였는데, 중국과 유럽의 대중동 수출 증가율은 22~23%로 가장 높았고, 기타 개도국이 17%, 일본과 미국은 13% 수준에 그쳤음.

- 중동의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중동 수출이 크게 늘지 않았던 과거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, 최근 대중동 수출 증가는 세계경제가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.

□ 오일달러는 중동 지역의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의 확대로 이어져 이 지역에서 건설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.

- 중동지역에서 건설시장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지출의 규모가 오일달러 유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, 1999년 대비 2004년에 그 규모가 50~250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최근 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47%(491억 ⇒ 723억 달러), 이란은 250%(131억 ⇒ 482억 달러), 알제리는 92%(143억 ⇒ 275억 달러)가 증가하였음.

<표 2> 중동 주요국의 정부지출규모 변화

(단위: 억 달러)

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
알제리	143	157	174	195	231	275
이란	134	133	163	234	419	482
사우디아라비아	491	627	680	621	685	723

자료: Global Insight.

-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생산능력 확충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, 최근에는 많은 자금이 석유와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**upstream 분야에 투자**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하지만 정유시설과 석유화학 플랜트 등 **downstream 분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** 이루어지고 있으며, 사회인프라 및 관광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.
 - 인구증가율도 높고 경기 호전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및 건축 부문 투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 - 하지만, 지금은 중동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오일쇼크 때와 같은 건설 붐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석유**upstream** 부문과 플랜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임.
- 현재까지 약 2,100억 달러의 오일달러가 해외에 투자되었지만,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의 오일쇼크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의 오일달러 규모는 실질가치로 환산하면 과거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, 지난 20여 년간 국제금융거래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제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작음.
 - 과거에는 오일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유럽에 유입되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- ※ 2004년에 오일달러 중 미국 증권시장으로 유입된 규모만도 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음.
- 그리고, 이제는 중동 외에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어 오일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음.
- ※ 2차 오일쇼크의 정점인 1981년에 중동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전체의 30%를 상회했지만 현재 그 비중은 5%에 불과함.

3. 오일달러와 한국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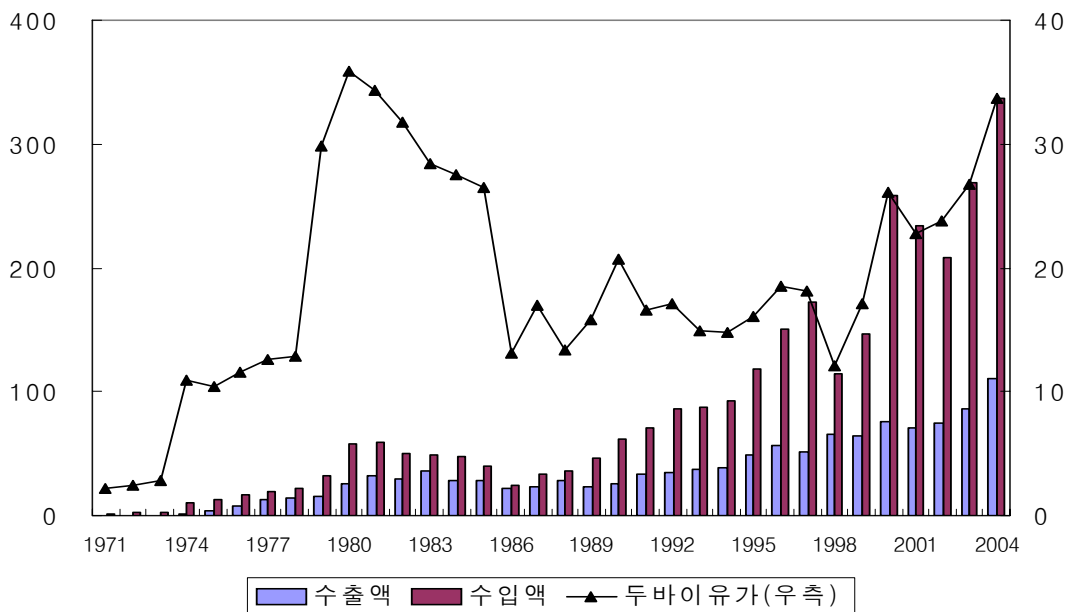
가. 대중동 교역

□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의 대중동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, 2000~04년간 총 석유수입액은 1,070억 달러(전체 오일달러의 약 10%)에 이릅니다.

- 한국의 대중동 수입은 1995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는데, 석유소비의 증가와 국제유가의 상승이 주된 이유임.
- 대중동 전체 수입은 1999년 147억 달러에서 2004년 337억 달러로 최근 5년간 2.3배나 증가하였음.
- 이중 석유(석유화학제품 제외)의 수입이 약 82%를 차지하여 5년간 석유수입총액이 1,07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, 이는 같은 기간 중동 전체 오일달러의 10%에 해당하는 규모임.

<그림 6> 한국의 대중동 교역액 및 국가유가 추이

(단위: 억 달러, 달러/배럴)



자료: 무역협회 무역데이터베이스

□ 한국에서 유출된 오일달러는 대중동 수출을 통해 일부 환류되고 있는데, 최근 5년간 수출 총액은 418억 달러였으며 그 동안 1.7배가 증가하였음.

- 대중동 수출은 1999년 64억 달러에서 2004년 11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특히 유가가 급등한 2004년에는 29.5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.

- 이는 중동지역 총수입 증가율 15%의 두 배 수준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며, 중국의 중동수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, 이동통신기기, TV,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며, 주력 수출품의 수출 증가율도 높은 상황임.

※ 2004년 품목별 수출액(증가율)을 보면, 승용차 15.7억 달러(97%), 무선전화기 6.8억 달러(35%), TV 5.8억 달러(4%), 화물차 3.2억 달러(91%) 등임.

□ 중동의 오일달러가 10%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2.3%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- 그리고, 중동지역 GDP가 10%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18.7%가 증가하며,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0.8%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- 따라서 2005년에 중동지역에 특별한 정세 변화가 없다면 현재 중동지역 경기가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오일달러의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동 수출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됨.

- 중동에 특별한 정세변화가 없을 경우 위 분석을 근거로 할 때 2005년 대중동 수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향후 중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이 기대되므로 집중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함.

- 특히 승용차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제품은 주로 EU나 일본 제품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,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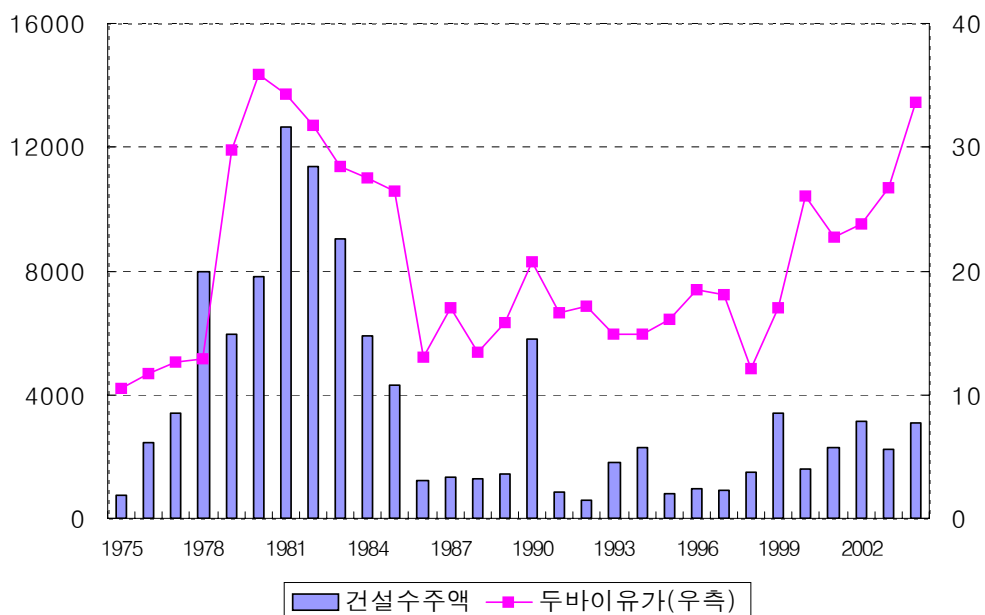
나. 중동건설시장 진출

□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한국의 중동지역 건설수주액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과거 오일쇼크의 30~40%에 불과함.

- 1980년을 전후한 2차 오일쇼크 당시 중동 건설수주액은 연평균 88억 달러였지만, 국제유가가 그 때와 비슷한 2004년에는 수주액이 30.6억 달러에 불과하였음.
- 이제는 중동지역에 사회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과거에 비해 발주규모가 감소한 것과, 한국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수주액의 상대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.
- 시공이 비교적 간단한 토목공사의 경우 현지기업이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터키, 이집트 등 인근국 건설업체나 중국기업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.

<그림 7> 한국의 중동지역 건설수주액 및 국제유가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, 달러/배럴)



자료: 해외건설업협회 건설데이터베이스

- 한편, 석유개발이나 석유화학관련 플랜트관련 대규모 사업이 발주되고 있지만 이는 오일 메이저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구미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음.
 - 플랜트 공사의 경우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로 발주되는데, 한국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 부족도 수주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- 과거에는 해외건설수주 중 대부분을 중동지역이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해외건설 지역이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하여 중동지역 비중이 50% 내외로 감소한 것도 중동 수주 감소의 원인임.
 - 그동안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매우 양호하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유인이 약했던 것도 해외수주 감소의 한 원인이었음
-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1999년 유가 상승과 더불어 중동지역 수주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향후 오일달러의 유입 증가는 이런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.
- 최근 5년간 수주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의 15.0억 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임.
 - 중동 건설수주액은 수출에 비해 오일달러에 훨씬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, 오일달러가 10% 증가할 경우 한국의 중동 수주액은 8.0%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이러한 분석을 기초할 때 2005년 중동지역 건설수주액은 오일달러의 유입증가로 전년 대비 약 18% 증가한 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고유가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동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,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경쟁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의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.